

1MW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순천에서 준공

-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및 태양발전시스템 성능평가 전망 -

- 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신재생에너지 R&D사업으로 추진한 1MW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증연구단지가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하여 4월 27일 순천에서 준공된다고 발표했다.
- 동 연구단지는 1MW급 태양광발전소와 계통연계 연구를 위한 설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마린(주)를 주관기관으로 '04.11~'07.10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9억원으로 진행되는 R&D과제이다.(정부: 7,485백만원, 민간: 2,493백만원)
- 국산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및 시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 단지는 전남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소재 폐염전을 활용하여 건설된다.(면적: 27,423㎡)
- 금번에 준공하는 실증단지 외에, 현재는 1MW 태양광 단지는 인천 영흥, 동해, 강진, 무안 등 4대의 단지가 운영중에 있다.
- 산자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으로 대규모 발전사업기술에 대한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태양광발전기술의 수출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동 연구단지가 국내외에서 보급되고 있는 20여 개사의 태양전지모듈 및 10여 개사의 인버터를 조합한 시스템 구성을 통한 태양광발전효율 분석 등 다양한 성능 비교시험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 원전, 중국 수출 본격화

두산중, 中 신형원전 건설에 원자로 등 핵심기기 3.5억불 규모 수주
 김 彦 資 참석 24일 上海서 '공급의향서' 체결

- 산업자원부(장관 : 김영주)는 중국 상하이에서 4월24일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주임 : 張雲川)와

공동으로 제2차 한중원전기술포럼을 개최했다.

- 동 포럼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장원천(張雲川) 국방과기위 주임(장관), 순친(孫勤) 국방과기위 부주임 겸 국가원자능기구 주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양국 원전관련 정부, 업계, 연구계 최고위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간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
- * 한국측은 산자부, 한전, 한수원 등 9개 기관 50여명, 중국측은 국방과기위 등 10개 기관 60여명 참가하였으며, 규모와 수준에 있어 '05.6월 서울에서 개최한 1차 포럼(80여명 참석)을 능가.
- 동 포럼은 외국과의 유일한 민간합동의 原電협력체널로 금번 양국의 거의 모든 원전관련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양국간 정례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체널로서 자리를 잡았다.
- 김영주 장관은 한중원전기술포럼 개최사에서 현재 양국간 협력관계의 질적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원전협력은 경제, 산업, 기술 등 전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참석자에 당부.
- 개막식 직후 김영주 장관과 장원천 국방과기위 주임 또는 순친(孫勤) 국가원자력기구 주임 임석 하에 두산중공업(사장 : 李南斗), 웨스팅하우스(사장 : Stephen R. Tritch)간 중국 산먼(三門, 절강성), 하이양(海陽, 산둥성) 원전 핵심주기기 공급 의향서(LOI)를 체결.
- 2008년~2013년간 산먼과 하이양에 지어질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으로, 두산중공업은 AP-1000 핵심 주기기 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업체와 치열한 경쟁끝에 수주에 성공.
- 두종의 공급범위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기기인 증기발생기(4개), 원자로용기(2개), 원자로 일체형 헤드집합체(2개) 등으로 공급금액은 3억5천만불 이상이며, 구체적인 가격과 공급범위는 협상중으로 금년 내 결정될 예정이며 아직 세계적으로 건설된 사례가 없음.

한전, 아제르바이잔과 협력 MOU 체결

- 민자발전사업에 상호협력하기로 -

- 한전(사장 이원걸)은 4월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아제르바이잔 비즈니스포럼에서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 하이데르 바바에프 장관(Heydar Babayev)과 장명철(張明哲) 해외사업본부장이 민자발전사업에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그 동안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민자발전사업(IPP : Independence Power Producer)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바쿠(Baku)시 인근에 700~1,000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동 사업방식으로 건설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 ※ 아제르바이잔 발전설비 용량 : 552만kW[우리나라(6,617만kW)의 1/10수준]
- 이에 한전은 아제르바이잔의 민자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금년 3월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 장관으로부터 한전의 민자발전사업 참여를 공식 요청받고 예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금번에 민자발전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 이번 MOU 체결은 한전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중앙아시아지역 전력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07년 전력전자·IT·전기설비를 한눈에

- 2007 국제전력전자·IT·전기설비전 개막 -

- 지진, 화재 등 재해시 전력계통상 사고발생 지점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COEX 대서양관에서 열리는 『2007 국제전력전자·IT 및 전기설비전(Electric/Power Korea 2007)』(산업자원부 후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주최)에는 국내·외 17개국,

230개 전력설비업체(해외 49업체, 300부스)가 참여했다.

동 전시회는 전력 및 전기산업의 첨단 산업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하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은 물론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기술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 이번 전시회에는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전압, 전류 등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고 지진, 화재 등 재해시에도 제어가 가능한 한전·한양대의「전력계통 위기관리시스템을 위한 위성통신 시뮬레이터」, 정전구간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춘 한전KDN(주)의 “배전자동화용 다기능 단말장치” 등의 기술들이 개발되어 전시되며, 동 전시회를 통해 전력산업 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대외 경쟁력강화 그리고 수출입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산업자원부 “전력 IT 기술개발 협의회”에서는 “전력 IT 컨퍼런스 2007”을 본 전시회와 동시 개최하여 “전력 IT 국·내외 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 “전력 IT사업 추진 현황과 성공적 목표달성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펼치며 동 행사장에서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미국 인명기관 ABI, '성태현 賞재단' 설립

- 한국전력 성태현 박사의 초전도분야 연구업적 인정 -

- 미국인명기관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는 초전도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전력(사장 李源杰) 성태현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성태현賞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성태현 박사(전력연구원)의 수평축 초전도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 세계 최초 개발, 하이브리드형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 세계 최초 제작 등 초전도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향후 ABI는 초전도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과학자를 발굴하여 성태현 賞을 수여하게 된다.

- 금번에 『상태현상 재단』을 설립한 ABI는 해마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술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탁월한 업적을 거양하거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을 엄선하여 인명사전에 수록하고 있다.
- 특히, 분야별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사를 선정하여 인사 이름이 부여된 상을 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태현 박사 등 총 4명의 인사를 기리는 상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아울러 상태현 박사는 ABI의 세계 위대한 인물 500인 2년연속 선정, 영국 세계 인명기관인 IBC 선정 세계 우수과학자 100인 선정, 미국 Marquis사의 Who's Who in the World에 3년 연속 등재되는 등 세계 3대 인명기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 있다.

한수원, IAEA 안전점검결과 우수사례 10건, 개선권고 1건

한국표준형 원전의 국제공인 성적표가 나왔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단은 5월 3일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종신·이하 한수원) 영광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기술로 개발한 100만kW급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의 안전점검 결과, 우수 운영사례 10건, IAEA 기준에 부적합한 개선권고사항은 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IAEA 기준을 충족하나 최신 우수사례 반영을 위해 제시하는 제안사항은 9건으로 나타났다.

리파(Lipar Miroslav) IAEA 안전점검 단장은 이에 대해 “보통 원전 선진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더라도 개선권고 및 제안 사항이 30여개씩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표준형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발전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표준형원전의 안전성이 국제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산업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져 최근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출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9개국 전문가 12명(단장 : Mr. Lipar, IAEA)이 참여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발전소 운전, 정비, 방사선 안전, 조직관리, 훈련 및 자

격, 기술지원, 화학 총 7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IAEA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표준형원전은 방사선 관리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및 제안 사항이 한건도 없었으며 우수사례만 2건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선진화된 방사선정보시스템(RIS) 운영으로 작업자 피폭 및 방사선 관리에 대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한 원격감시설비(CCTV)를 활용한 방사선작업관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제어실 운전원의 전문성 △시의적절한 발전소 정비활동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점검단은 반면 실험실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표준형원전은 1984년 기술자립계획에 따라 미국의 ABB-CE사의 시스템80을 기준모델로 축적기술과 국내외 최신설계기준을 적용 국내기술로 개발된 모델로 울진 3/4, 영광 5/6, 울진 5/6호기 등의 반복건설로 공기단축과 높은 운영효율성 등으로 경제성을 갖춰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수출을 추진중인 모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표준형원전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돼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게 됐다”라고 말했다.

중부발전, 서울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양해각서 체결

중부발전(사장 정장섭)은 4월 16일 서울특별시청 태평홀에서 정장섭사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력분야는 서울특별시 산하 물재생센터, 정수장 등 가용부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등과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기로 합의 했으며, 우리회사는 서남 물재생센터, 뚝도 정수장 등을 대상으로 설비규모 2,000kW급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섭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서울특별시와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청정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서발전, 「효율향상 및 에너지절감 워크숍」 개최

한국동서발전(사장 정태호)이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제주도 한화콘도에서 6개 사업소 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향상 및 에너지절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서발전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 비전 2030」선포 등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전설비의 실질적인 효율 향상과 에너지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동서발전은 주제관련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노하우(Know-how)를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또한 동서발전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발전분야 정책위원을 초빙해 정부 주도하에 도입을 추진중인 에너지 경영체제(EQM: Energy Quality Management)와 에너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정책을 접목해 더욱 효율적인 발전설비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파워 Global · POSCO Way 실천선언

포스코파워(사장 이승우)는 포스코의 Global POSCO Way “Creating Another Success Story”선포에 발맞추어 지난 4월20일 노사가 공동으로이를적극실천할것을선언하였다.

이날 선언식에서 회사는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직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조합은 회사발전을위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 기로하는등 노사가 하나되어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성공신화창조에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승우사장은 기존의사고방식과 일하는 방법을 과감

히 버리고 새로운신 화창조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으며, 포스코를 대표해 참석한 최종태부사장 또한 축사를 통해 선배들이 이룩한 성공신화를 포스코파워가 이어받아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신 화창조를 하길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노동조합(위원장송수철)은 2007년 임금에 대해 임금교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에 빛나는 모범사업장으로 나아가는데 적극 협력할것을 약속하여 이날 동참 선언식에 큰의미를 더했다.

LS산전, 1분기 매출 13% 신장...2천937억원 달성

- 매출액 2천937억원, 영업이익 308억원, 경상이익 342억원 순이익 256억원
-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 13% 신장, 영업이익 9% 감소, 경상이익 5%, 순이익 2% 신장
- LS산전 연 매출 1조2천500억원, 영업이익 1천550억원 예상

LS산전(사장 : 김정만 www.lsis.biz)은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2천937억원, 영업이익 308억원, 경상이익 342억원, 순이익 256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은 13% 신장, 영업이익 9% 감소, 경상이익 5% 신장, 순이익 2% 신장한 것이며,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 16%, 영업이익 19% 감소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영향을 받는 사업특성상 계절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 분기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신장한 951억원, 내수는 3% 신장한 1천986억원”이라며 “이번 1분기 수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LS산전은 올해 매출은 지난 해보다 3.7% 신장한 1조 2천500억원, 영업이익은 2% 신장한 1천55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